

# VD

제10차 정기총회

# special

# 정기총회



2



1

## 벤처비전 2010 선포,

### 2005년 사업계획 발표 및 신규 임원진 43명 선임

협회는 2월 28일 르네상스호텔에서 200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0년까지 '국내총생산 10%, 고용 200만명, 수출 3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6가지 실천과제를 담은 '벤처비전 2010'을 발표했다. '비전 2010'의 골자는 ▲매출 2천억원, 수출 1억달러 초과 중핵기업 300개 육성 ▲3만 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보통신 강국 실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사회공헌 활동 확산 ▲청년실업 해소 등이다. 이를 발판으로 벤처 재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전망이다. 이날 정기총회 식전 프로그램으로는 '벤처 활성화 대책과 벤처기업인의 자세'에 관한 재정부 김광림 차관의 연설과 '이순신과 벤처정신'을 주제로 한 서강대학교 지용희 교수의 강연이 펼쳐졌다. 이어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대표와 에스엔유프리시전 박희재 대표의 벤처기업 성공 사례 발표가 있었다.

본격적인 총회의 막이 오르자 강문현 감사가 2004년도 회계 및 업무 감사결과를 보고했고, 오형근 상근부회장은 2004년 사업실적과 2005년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벤처 재도약을 위한 벤처역량 강화'를 목표로 삼은 2005년도 주요사업은 △연구·교육 강화 △윤리경영 및 이미지 제고 △글로벌화 지원 △창업 및 성장인프라 구축 △정보제공기능 강화 △일자리 창출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이다. 각 사업을 통해 역량을



1. 정기총회 참석자들은 벤처 재도약을 위해 함께 될 것을 다짐했다. 2. 조현정 회장은 취임소감을 통해 벤처 활성화를 주도해 나갈 뜻을 밝혔다.
3. 공동회장직을 맡은 장흥순 회장이 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4. 협회 회원들을 비롯 경제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총회는 어느 해보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5. 10여 년간 협회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벤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휴맥스 변대규 대표와 로커스 김형순 대표(오른쪽 맨끝)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6. 벤처산업 비전 선포식을 거행함으로써 협회는 '벤처비전 2010'의 실현계획을 구체화했다.
7. 만찬과 함께 진행된 3부 순서에는 격려사, 축사, 신규 임원 소개가 있었다. 8. '우주호와 성악 앙상블' 중창단의 축하공연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벤처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구심체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이어서 지난 이사회에서 추대된 조현정 대표가 신임회장으로 정식 선출되었다. 조회장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9월까지 한시적으로 장흥순 회장이 공동회장을 맡기로 했다. 수석부회장도 종전의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신규 임원진은 회장 2명, 회장단 20명, 이사 21명 등 총 43명이 확정됐다. 이번 협회의 조직개편의 특징으로는 업무분산과 조직화를 꼽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책기획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 산하 6개의 포럼을 설립했다. 새롭게 만들어진 6개의 포럼은 벤처정책포럼(위원장 김태희), 벤처사회공헌포럼(위원장 백종진), 벤처문화산업포럼(위원장 우성화), 홍보정책포럼(위원장 신원호), 정보통신산업포럼(위원장 박성찬), 부품소재산업포럼(위원장 황기수) 등이다.

벤처 재도약을 위해 최선봉에서 뛰게 될 조현정 회장은 “벤처기업인의 권익보호와 벤처산업이 다시 한번 비상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임소감을 전하고, 더불어 “벤처기업들이 매년 평균 25%씩 성장하는 추세인데다 정부의 혁신기업 육성정책까지 맞물려 우리의 목표는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며 벤처비전 2010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